

2020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 주제 :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 -

2021. 2.

차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배경과 목적	1
제2절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	1
제3절 조사방법	2
제2장 조사결과	
제1절 학교 방문 조사결과	4
제2절 학생 설문 조사결과	7
제3장 요약과 제언	
제1절 조사결과요약	20
제2절 제언	26
〔참고문헌〕	29
〔설문지〕	30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배경과 목적

최근 혐오 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학교에서도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하는 현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교육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은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를 방문조사 하였다. 방문조사 결과는 학교 내 소수자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혐오표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2절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

1.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 느끼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뜻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사전적 개념의 혐오를 넘어 개인이나 집단을 표적으로 적대·비방·비하·괴롭힘 등의 표현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무차별적으로 차별, 공격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2020 방문조사는 학교에서의 혐오표현을 이해하고, 혐오표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개념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에 명시한 개념을 사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정의한다.

위 혐오표현의 개념은 “어떤 속성을 가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대상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어떤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드러내거나 혐오스러운 것에 비유하여 모욕·비하·멸시하거나, 욕설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그에 대한 차별·폭력을 선전·선동하고(어떤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널리 알리거나 부추기는 행위), 대상 집단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아닌 언어 등을 사용한 언동”이라고 할 수 있다.¹⁾ 혐오표현의 주된 대상 집단은 차별의 주요 대상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 집단이다.

2. 혐오표현의 유형

혐오표현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러나 표면상으로 모욕, 비하 발언으로 보이거나 맥락상으로는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어 명확한 유형 구분이 쉽지 않다. 혐오표현의 두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욕·비하·멸시·위협하는 표현이다. 이는 대상 집단을 부정적 이미지로 일반화시켜 묘사하는 경우로 김치녀, 된장녀, 성형충, 한남충, 할애피, 꼴페미 등과 같은 표현이 해당된다.

둘째, 차별·폭력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표현²⁾이다. 이는 대상 집단에 대한 편견을 이용하여 차별이나 폭력을 부추기거나 선동하는 것으로 ‘너네 나라로 가라.’, ‘장애인은 집에만 있어라.’ 등과 같은 표현이 해당한다.

제3절 조사방법

1. 조사 내용

- 2019년 학교폭력 사안 중 혐오표현 관련 현황
- 2019년 혐오표현 관련 상담 현황
- 2019년 혐오표현 관련 교육(교직원, 학생 등) 현황
- 학교생활규정에 혐오표현 관련 규정 유무
- 학교 내 혐오표현 예방 노력
- 학생의 혐오표현 실태

2. 조사 근거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1) 혐오표현 Hate Speech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2019.10.

2) 선동표현이란 물리적 폭력과 혐오표현의 경계에 존재하는 표현 행위(박용숙, 2018)

3. 조사방법

1) 조사 기간 : 2020. 10. 5.(월) ~ 10. 30.(금)

2) 조사단 구성

- ①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1명, 인권활동가 1명, 학부모 4명
- ② 방문조사단장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1명이 수행
- ③ 조사단 구성

순	이름	소속	직위	비고
1	강**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조사단장
2	김**	익산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
3	김**	사) 인권누리	인권활동가	-
4	김**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인권강사	-
5	문**	-	학부모	-
6	백**	-	학부모	-
7	이**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인권강사	-
8	한**	전북해바라기센터	부소장	-
9	윤**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방문조사 총괄
10	문**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	방문조사 담당
11	이**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	행정지원
12	강**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	행정지원

3) 조사방법

① 자료조사

- 학교폭력 사안보고 접수 대장(혐오표현 관련 현황)
- 혐오표현 관련 상담 현황과 내용
- 혐오표현 관련 교육 현황
- 학교생활규정(혐오표현 관련 조항 유무)
- 혐오표현 예방 노력(관련 자료)

② 현장방문 조사: 방문조사단이 학교 방문

- 교장과 교감, 인성건강부장, 상담교사 면담과 설문 조사
- 학생 면담과 설문 조사

4) 조사대상

- 지역별 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도내 중학교 40개 교 선정

〈표 1〉 방문조사 대상 학교³⁾

학교급	유형	학교 수	백분율(%)
중학교	공립	31	77.5
	사립	9	22.5
계		40	100

제2장 조사결과

제1절 학교 방문조사 결과

1. 학교생활규정

조사결과, 조사 대상 학교 중 90%(36개교)에 해당하는 학교가 학교생활규정에 혐오표현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교생활규정에 혐오표현 관련 조항 현황

유형	혐오표현 관련 조항 유무(%)		
	유	무	전체(%)
공립	27(87.1%)	4(12.9%)	31(100%)
사립	9(100%)	0(0%)	9(100%)
전체(%)	36(90%)	4(10%)	40(100%)

2. 혐오표현 관련 교육

3) 이 조사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 자칫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학교명은 생략함

학교가 구성원에게 혐오표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지 조사 하였다. 그 결과 혐오표현 관련 교육은 조사 대상 학교의 82.5%(33개교)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혐오표현 관련 교육 유무

유형	교육 유무(%)		
	유	무	전체(%)
공립	26(83.9%)	5(16.1%)	31(100%)
사립	7(77.8%)	2(22.2%)	9(100%)
전체(%)	33(82.5%)	7(17.5%)	40(100%)

3. 혐오표현 관련 학교폭력 사안 접수 현황

2019년 학교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학교 40개교 중 9개교가 총 17건의 사안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혐오표현 관련 학교폭력 사안 접수 현황

접수 학교 수	접수 건 수	사안내용
9	17	교사에게 부적절한 언어 사용, 오프라인에서 언어폭력, 온라인에서 언어폭력 ⁴⁾ , 오픈 채팅방에 성관련 표현, 전화통화 중 욕설, 부모 비하 발언,

4. 혐오표현 관련 상담 현황

2019년 혐오표현 관련 상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학교 40개교 중 9개교가 총 98회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혐오표현 관련 상담 현황

접수 학교 수	상담 건 수	
9	98	언어폭력(똥똥하다, 돼지 같다, 조폭 같다, 섹스해라, 모텔가라, 키가 작다, 돼지새끼, 절벽, 등골브레이크다), 패드립(니에미 등의 표현), 욕설, 비난, 인격모독, 뒷담화, 따돌림, 이간질, SNS 비속어, 비하 등

4) ‘성관계하고 싶다’ 는 표현, 성관련 혐오표현, 욕설, ‘오덕, 장애인, 찌다년아’ 등의 표현, 성기를 낙엽에 비유, 꽃땀, 걸레년 등 표현 사용

5.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

조사 대상 학교 중 92.5%(37개교)는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는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에게 인성교육, 인권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관련 교과(도덕, 사회 등)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학생자치 활동과 자율 활동, 가정통신문이나 포스터 제작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창체 또는 자율시간과 수련회 등과 연계하여 인권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교 내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

예 방	대응
교직원회의 직원 교육	가정통신문, 교육자료 배부
학생조회시간, 생활규정 안내 시 학생전체교육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상담)
인성교육, 인권교육 / 교과목 연계교육	인성교육, 인권교육 확대
학교폭력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혐오 예방 교육 또는 감정표현 교육
언어폭력 예방 교육 / 언어문화 개선 예방교육	고운 말 쓰기 운동
학생자치 활동	학생, 학부모, 교사 교류 확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수시 교육	창체, 자율시간 연계 교육
생활지도 교육	훈계(즉각적인 지도), 반성문 제출, 교내봉사
친구사랑 주간 운영(혐오표현 토론)	인권감수성 함양 수련회 또는 선진지 견학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동영상, 포스터 홍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교육
혐오표현 반대 캠페인	국가인권위원회 연수자료 활용한 교육
인권관련 수련활동 또는 견학	비폭력 대화 교육 / 생활지도 확대

6. 혐오표현 관련 교육과 홍보 자료 활용

학교가 전라북도교육청이 제공한 혐오표현 관련 교육과 홍보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학교의 32.5%(13개교) 학교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혐오표현 관련 자료 활용 유무

유형	자료 활용 유무(%)		
	유	무	전체(%)
공립	13(41.9%)	18(58.1%)	31(100%)
사립	0(0.0%)	9(100.0%)	9(100%)
전체(%)	13(32.5%)	27(67.5%)	40(100%)

7. 학교에서 발생한 혐오 관련 문제 유형

학교에서 발생한 혐오 관련 문제 유형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학교의 52.5%(21개교)는 학교 내 혐오 관련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47.5%(19개교)는 혐오 관련 문제의 유형을 비속어 사용, 성적인 표현, 장애인 비하 발언, 다문화 학생 비하 발언, 가족(부모)과 외모, 패드립 등이라고 답하였다.

〈표 8〉 학교에서 발생한 혐오 관련 문제

응답(%)		유형
있다	52.5	비속어 사용, 성적인 혐오표현, 몸짓을 이용한 혐오표현, 욕설, 유행어 사용, 장애인 비유, 부모 이름 비방, 거친 표현, 교우 관계 혐오표현, 신체적 특성을 놀리는 표현, 장애 관련 표현, 패드립, 외모 지적, 실력 비하, SNS상 혐오표현, 게임할 때 부적절 용어 사용
없다	47.5	-

제2절 학생 설문 조사결과

학생에게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를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는 각 학교당 10명 이상을 선정 하여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 내용은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학교에서 경험한 혐오표현과 관련한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 일반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조사대상 일반 현황

구분	지역														성별		학년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전주	정읍	진안	남	여	1	2	3
학생수	20	40	20	30	10	20	20	20	50	20	10	80	40	20	180	220	78	136	186
비율 (%)	5	10	5	15	2.5	5	5	5	12.5	5	2.5	20	10	5	45	55	19.5	34.0	46.5

1. 혐오표현 경험과 인식

혐오표현 직·간접 경험과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학생은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7.5%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12.5%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성별	있다(%)	없다(%)	합(%)
남	86.1	13.9	100
여	88.6	11.4	100
전체	87.5	12.5	100

1-2. 혐오표현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경험한 혐오표현의 내용을 질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응답 내용을 2개의 유형, 7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유형	범주	응답 내용
모욕·비하·멸시 · 위협하는 표현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 장애야? / 너 장애인이나?, 장애자냐? ■ 너 장애 있냐? ■ 병신 장애냐? 고추 떼라 손 없냐? ■ 손 장애냐? / 장애 같아 ■ 장애냐? 자살해 / 장애인, 장애인년아 ■ 장애새끼, 장애인 같은 새끼야, 장애인 새끼 ■ 이 병신 새끼야 / 장애인 비판, 비하 발언 ■ 난쟁이 / 장애인을 차별하는 말, 욕, 상처 되는 말 ■ 느금마 장애자냐? / 니 애미 장애야?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년아 / 개상년 ■ 걸레년, 김치녀 / 김치년 ■ 꽃뱀/ 창녀, 오늘도 박았냐? / 창녀 ■ 된장녀 ■ 따까리년 / 걸레 ■ 쌍년, 쌍년이 ■ 여성혐오 / “꼬리친다”, “여우년이다” ■ 여초 ■ 정당화하는 년 / 메갈 ■ 조신하게 행동 하렴 ■ 느금마 창녀, 즈금마 창녀 / 니애미 걸레
	다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네 엄마 베트남 쌀국수/ 베트남 ■ 다문화가정 비하/ 혼혈잡종 새끼 ■ 인종차별적 언어 (흑형)/ 흑인 비하 ■ 중국인 차별 ■ 신체조건, 피부색에 관한 것 ■ 피부색 이상하다 ■ 한남

유형	범주	응답 내용
	성소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이/ 게이 같다 /게이 새끼 ▪ 트랜스젠더인 그 사람의 신체가 혐오스럽다는 내용 ▪ 너 게이냐?/ 동성애자라는 소리 ▪ 동성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더럽다 ▪ 레즈비언/ 성드립 ▪ 성소수자 비하(레즈냐?등) ▪ 성적 지향 관련 혐오표현 ▪ 똥꼬, 똥꼬충 ▪ 니 애미 게이냐?
	동물, 벌레 등 비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충/ (친구이름) 벌레 ▪ 너 돼지 같아, 돼지 새끼임? ▪ 맘충 ▪ 벌레 새끼
	패드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금마 좇같다 ▪ 느금마, 교육 못 받은 티 내지마라 ▪ 어머니 없는 티 내지마라 ▪ 니미/ 니 애미 / ▪ 부모님 욕이나 인신 공격 ▪ 느금마 장애인냐?/ 니 애미 장애야? ▪ 느금마 창년, 즈금마 창녀/ 니 애미 걸레 ▪ 느금마 38선 ▪ 니 엄마 보지텔 째지 보지(엄마 성함 말하면서 패드립) ▪ 재 애미 뒤졌나봐, 엄마 뒤졌냐, 애미 뒤진 놈 ▪ 니 애미 게이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혐, 너 극혐이다/ ** 싫어 ▪ 더럽다 ▪ 똥뽕/ 잼민이 ▪ 얼굴 개똥았네 등 인신공격 ▪ 툅딱 ▪ 흥어꼐대 ▪ 예수쟁이 / 종교비하 / 종교에 관한 것
차별·폭력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을 못할 때 여자냐고 물어 본다 ▪ 남자애도 아니고 그게 뭐냐/ “너는 여자답게 행동해” ▪ 니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 여자가 ~해야지/ 여자가 나댄다 ▪ 여자가 무슨 운동이야/ 여자가 칠칠치 못하게 그게 뭐니 ▪ 여자는 머리 길고 얹전해야지 ▪ 친구한테 ‘레즈, 게이가 너무 싫다’라고 들었다. ‘존재하면 안 돼’ ▪ 남녀차별에 관한 내용/ 남자와 여자 비하하는 내용/ 성차별적 발언 ▪ 남자가 ~해야지/ 남자가 질질 짜네 ▪ 남자는 울지 말아야 한다/ 남자애가 무슨 여자에 같냐 ▪ 남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다

1-3. 혐오표현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혐오표현 경험 빈도를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의 30.2%가 ‘자주-일주일에 2~3회 정도’ 라고 응답하였고, 22.4%의 학생은 ‘항상-매일’ 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문항	응답 내용	응답율(%)
1	항상(매일)	22.4
2	자주(일주일에 2~3회 정도)	30.2
3	가끔(일주일에 1회 정도)	19.5
4	드물게(월 1회 정도)	16.7
5	기타(2~3년에 1회, 1년에 1회(2), 3일에 1회, 2~3주에 1회, 월 2회, 일주일에 5회(2), 일주일에 1회, 일 년에 1회, 학교 등교시마다, 아주 드물게, 게임(리그오브레전드) 중, 특정 요일에 열 몇 번)	11.2

1-4. 혐오표현을 주로 어디에서 경험하였는지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의 55.4%가 ‘온라인’ 에서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30.3%의 학생이 SNS에서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응답문항	응답 내용	응답율(%)
1	온라인 { SNS(30.3%), 커뮤니티(11.0%), 유튜브(27.5%), 게임(19.3%), 단톡방(11.0%), 온라인 수업(0.9%) }	55.4
2	오프라인 { 정규수업(46.4%), 방과후 수업(25.0%), 생활지도 중(10.7%), 학원수업(7.2%), 기숙사(10.7%) }	10.0
3	기타(사람들과 대화 중,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서, 친구들과 대화 중, PC방에서, 학교에서, 학원수업 중)	4.6

1-5. 혐오표현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의 78.1%의 학생이 ‘친구’ 라고 응답하였으며, 3.2%의 학생들은 ‘학교 교직원’ 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내용	응답율(%)
1	친구(학교, 학원, 동네 등의 이성 또는 동성 친구)	78.1
2	학교 교직원	3.2
3	학원 강사	2.5
4	가족	2.5
5	기타(모르는 사람들, 나, 음식점 주인 등)	13.7

1-6. 혐오표현 경험 당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의 57.4%의 학생이 ‘무시했다’ 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율(%)
1	재미있어서 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3.7
2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11.2
3	동의한다는 표현을 하였다	4.1
4	무시했다.	57.4
5	반대하는 표현을 알렸다.	11.4
6	학교, 보호자, 사이트 관리자(온라인의 경우), 경찰 등에 알렸다.	2.3
7	기타(상대방에게 똑같이 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기분 나쁘고 힘들었다, 댓글로 신고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겼다, ‘너나 똑바로 해’ 라고 말했다, 너무 심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느꼈다, 화를 냈다. 등)	9.9

1-7. 혐오표현을 경험할 당시 느낌을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의 57.1%의 학생이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율(%)
1	별 생각이 없었다.	32.1
2	재미있었다.	4.1
3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1.9
4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57.1
5	기타	4.8

1-8. 혐오표현을 경험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의 29.3%의 학생이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을 피하려고 했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율(%)
1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을 피하려고 했다.	29.3
2	그런 표현을 한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했다.	23.3
3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는 게 어려워졌다.	6.6
4	자존감이 떨어졌다.	7.9
5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다.	3.4
6	일상생활에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0.9

7	기타 (그런 표현은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고 싶었다, 한 대 치고 한 판 붙고 싶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니까 상관없다, 불쾌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불편하고, 짜증나고, 기분이 나빴다,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 그런 말을 했던 친구와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등)	28.6
---	--	------

2-1. 학생에게 타인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더니, 학생 중 남학생 전체의 70.6%, 여학생 전체의 63.6%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성별	있다(%)	없다(%)	합(%)
남	70.6	29.4	100
여	63.6	36.4	100
전체	66.8	33.2	100

2-2. 혐오표현을 타인에게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혐오표현 대상이 누구였는지 질문하였더니 76.5%의 학생이 ‘친구’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율(%)
1	친구(학교, 학원, 동네 등의 이성 또는 동성 친구)	76.5
2	학교 교직원	1.5
3	학원 강사	0.6
4	가족	6.3
5	기타(온라인 게임 상대, 친척들 등)	15.1

2-3. 혐오표현을 타인에게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주로 사용한 혐오표현 내용을 질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응답 내용을 2개의 유형, 6개의 범주⁵⁾로 구분하였다.

유형	범주	응답자			응답내용
		전체(%)	성별(%)		
모욕·비하· 멸시·위협하 는 표현	장애인	59.4	남	4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신 / 똥구▪ 바보냐?, 바보 / 염병하네▪ 장애야, 장애인아 / 장애인 비하 발언▪ 난쟁이

5) 문항 1-2와 같이 7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더니, ‘여성’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문항 2-3에 대한 응답 결과는 6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유형	범주	응답자		응답내용
		전체(%)	성별(%)	
			녀 5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신 / 붕신 ▪ 결정장애 / 선택장애 ▪ 찌파 / 바보 ▪ 아픈 친구가 있었는데 장애인 학교 가지 왜 일반 학교 다니냐고 함 ▪ 장애인 비하 발언 ▪ 너가 우동사리니? 너는 대뇌가 크게 다쳤구나? ▪ 장애냐?(특정 신체 부위가 특이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를 때) ▪ 장애야?, 장애인이나?
	다문화	1.0	남 0	▪ -
			녀 100	▪ 일본 노래 듣냐?
	성소수자	7.3	남 7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 게이냐? / 게이들아 ▪ 게이 / 씹게이
			녀 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성애냐? ▪ 게이 새끼네
	동물, 벌레 등 비유	18.8	남 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 / 벌레 새끼냐 ▪ 개벌레네 ▪ 멸치 / 돼지
			녀 6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충 ▪ 너는 멧돼지 닮았어 / 돼지 ▪ 버리지 같은 년 ▪ 오징어 / 멸치
	패드립	5.2	남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금마 / 니애미 ▪ 패드립
			녀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욕설 ▪ 패드립
	기타	26.1	남 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에 밥 먹으러 간다 ▪ 믿을 게 없어서 하나님 믿는다 ▪ 종교관련 혐오표현 ▪ 극혐 / 니얼굴 극혐 ▪ 뽕대가리 / 놀리는 내용 ▪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 트롤
			녀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혐, 니 얼굴 극혐 ▪ 꼰대 ▪ 너 덩초(초딩)냐? / 잼민이
차별·폭력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표현		5.2	남 0	▪ -
			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가 약해가지고 맨날 아프다 ▪ 여자가 다리 벌리고 앉아 있냐?

유형	범주	응답자			응답내용
		전체(%)	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자니까~ 해야지 여자답게 / 남자답게 넌 남자니까 올면 안 돼 니가 남자냐? / 그러고도 남자냐?

2-4. 혐오표현을 타인에게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혐오표현 사용 빈도를 질문하였더니, 26.3%의 학생이 ‘자주-일주일에 2~3회 정도’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율(%)
1	항상(매일)	12.8
2	자주(일주일에 2~3회 정도)	26.3
3	가끔(일주일에 1회 정도)	23.9
4	드물게(월 1회 정도)	20.2
5	기타(짜증날 때마다, 명절 때, 1년에 1~2회, 예전에는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	16.8

2-5. 혐오표현을 타인에게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였지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의 46.7%의 학생이 ‘오프라인’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31.6%의 학생이 ‘정규수업’ 중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율(%)
1	온라인 SNS(7.0%), 커뮤니티(0.0%), 유튜브(3.5%), 게임(38.0%), 단톡방(31.0%), 온라인 수업(3.5%)	35.5
2	오프라인 정규수업(31.6%), 방과후 수업(15.8%), 생활지도 중(21.1%), 학원수업(10.5%), 기숙사(21.0%)	46.7
3	기타(친구들과 만나서 놀 때, 친구들과 대화 중, 학교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17.8

2-6. 혐오표현을 타인에게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할 당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질문하였더니, 50.1%의 학생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율(%)
1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다.	21.0
2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12.3
3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50.1
4	기타(갈등 발생, 같이 웃고 넘어갔다 등)	16.6

2-7. 혐오표현을 타인에게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한 이유를 질문하였더니, 31.5%의 학생이 ‘상대방이 먼저 혐오표현을 사용해서’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율(%)
1	재미있어 보여서	6.2
2	다들 그렇게 하니까	16.1
3	내가 좋아하거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1.3
4	상대방이 먼저 혐오표현을 사용해서	31.5
5	혐오표현인지 모르고 장난으로	23.9
6	기타(놀라서, 리액션으로, 생각 없이, 상대방이 싫어서, 평소 상대방이 잘 받아줘서, 습관적으로, 점점 강도가 센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주변에서 많이 들어 익숙해져서, 친근감의 표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좀 있어 보여서 등)	21.0

3-1. 학생에게 본인이 타인에게 혐오표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더니 75.8%의 학생이 ‘있다’, 24.2%의 학생이 ‘없다’ 고 응답하였다.

응답 성별	있다(%)	없다(%)	합(%)
남	77.8	22.2	100
여	74.1	25.9	100
전체	75.8	24.2	100

3-2. 타인에게 혐오표현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혐오표현을 당한 빈도를 질문하였더니, 25.9%의 학생이 ‘가끔-일주일에 1회 정도’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율(%)
1	항상(매일)	12.4

2	자주(일주일에 2~3회 정도)	19.7
3	가끔(일주일에 1회 정도)	25.9
4	드물게(월 1회 정도)	27.1
5	기타(1년에 1회 정도, 아주 드물게, 초등학교 때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 거의 없음. 등)	14.9

3-3. 타인에게 혐오표현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혐오표현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하였더니, 50.1%의 학생이 ‘친구’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문항	응답내용	응답율(%)
1	같은 학교 학생	27.3
2	친구	50.1
3	교사	3.6
4	잘 모르는 사람	10.1
5	기타(가족, 게임 상대, 온라인에서, 학원 강사와 학생들 등)	8.9

3-4. 타인에게 혐오표현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더니, 34.9%의 학생이 ‘혐오표현인지 모르고 장난으로’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율(%)
1	재미있어 보여서	11.2
2	다들 그렇게 하니까	27.7
3	혐오표현인지 모르고 장난으로	34.9
4	내가 먼저 혐오표현을 사용해서	4.1
5	기타(게임을 못 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냥, 남 탓 하려고, 친해지려고, 시비 걸려고, 습관이 되어서, 싸워서, 실수로, 욕 해서, 세 보이려고, 답답해서, 화나서, 짜증나서 등)	22.1

3-5. 타인에게 혐오표현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혐오표현을 당한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질문하였더니, 51.7%의 학생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율(%)
1	우울했다.	9.8
2	혐오표현을 한 사람과 싸웠다.	13.6
3	혐오표현을 했던 사람을 피했다.	11.8

4	무서웠다.	1.8
5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51.7
6	기타(생각하면 짜증남,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넘어감, 나도 똑같이 표현함, 그런 말을 또 들을까봐 걱정됨 등)	11.3

3-6. 타인에게 혐오표현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혐오표현의 주된 내용을 질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성별	응답 내용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 장애냐?, 장애인 새끼 / 바보, 병신, oo, 염병 / 결정 장애, 분노조절장애 ■ 너 머리가 없냐?, 머리에 문제 있냐?, ■ 미니언즈 / 잼민이 ■ 니얼굴 극혐 ■ 욕설(개보지, 좇자지, xxx 새끼, ##새끼, 개xxx야, 똥똥, 똥똥이, ㄹㅇ ㅋㅋ, ㅋㅋ ㄹㅇㅋㅋ, 씨*년, 벌레새끼야, ##, 푼박아, 상, ###, 쌀벌레 같은 년아, ##맨, 좇까, 찌질이, 개*야, *까 등) ■ 패드립(니금마, 니애미 등) ■ ~충(급식충) ■ 비하발언(장애인, 성소수자, 성별, 인종, 지역)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가 조신해야 한다, 여자가 조금만 먹어야지, 여자가 왜 그렇게 웃어 여자애가 남자같이 웃네, 여자처럼 행동해라, 여자가 남자 같다, 머리를 머슴애처럼 잘랐대?, 이래서 여자는 뭘 하면 안 돼 ■ 병신, oo, 찌파, 조까, **, OO ■ 장애인, 장애냐?, 장애새끼야, ■ 대가리 빵꾸, 찌파, 절벽, 개꿀 뽀다, ■ 오타쿠 같다. 예수쟁이, 노잼, 꼰대, 짱개 ■ 급식충, 한남충 ■ 레즈냐?, 동성애, ■ 돼지새끼 ■ 욕설(새끼, ##, 개쓰냐, 개호구년, 이 ##년아 돌았냐?, 졸라, 개 같은 년) ■ 정당화하는 년, 여우년, 김치년 ■ 패드립(니애미, 니네엄마 미친년, 성적표현 등) ■ 비하발언(성소수자, 외모, 성적지향, 종교, 성별, 장애 등)

4. 학생에게 혐오표현이 온라인에서 발생했을 때와 오프라인에서 발생했을 때 어느 경우가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3%의 학생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비슷하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율(%)
1	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이 온라인에서의 표현보다 더 심각하다	20.0
2	온라인에서의 표현이 오프라인에서의 표현보다 더 심각하다	31.7

3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비슷하다	48.3
---	-------------------	------

5. 학생에게 학교에서 혐오표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의 38.0%의 학생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 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율(%)
1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	38.0
2	차별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음	12.9
3	갈등이 심해짐	24.4
4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임	17.5
5	혐오차별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 될 것임	7.2

6. 학생에게 혐오표현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의 48%의 학생은 ‘있다’ , 52%의 학생은 ‘없다’ 고 응답하였다.

7. 학생에게 학교에서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범주	응답 내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표현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한다.(114) ▪ 혐오표현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2) ▪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존중하도록 교육한다.(4) ▪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3) ▪ 젠더(남성, 여성, 논 바이너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2) ▪ 동성애, 양성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 지향성에 대한 교육, 성 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 / 페미니즘에 대해 교육한다. ▪ 정신교육이 필요하다. ▪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이 효과적이다.(2) ▪ 혐오표현이라는 교육을 학교 폭력예방교육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2) ▪ 혐오표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결과를 보여주며 교육한다.(3) ▪ 혐오표현의 정의나 그 영향력을 교육한다.(2) ▪ 혐오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사용하는 아이도 있다. 그렇기에 혐오표현에 대해 교육을 하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느끼고 반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2) ▪ 2-3달에 한 번 혹은 한 학기당 한 번 정도 혐오표현 예방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거나 교육한다.

범주	응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표현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지 않게 올바르게 교육한다.(3) ▪ 선생님 또는 학생이 혐오표현을 사용했을 때 주변사람 또는 친구 등이 “그것은 혐오표현이야, 혐오표현을 사용하면 안 돼.” 와 같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혐오표현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들의 입장 같은 것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3) ▪ 혐오표현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시행한다. 하지만 세뇌교육보단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혐오표현을 들었을 때의 감정과 느낌을 체험해서 혐오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걸 알려주면 좋겠다. ▪ 혐오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 자신이 상대방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할 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들을 교육하며 또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없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2) ▪ 단톡 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자제하도록 교육한다. ▪ 일반교육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모든 친구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여서 모두가 동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고, 혐오표현에 관한 교육을 더 많이 하고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 교실에서 1교시 동안 규칙을 꾸준히 하면 될 것 같다.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표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7) ▪ 자신이 한 말이 혐오표현인지 아닌지 알고 써야 한다.(6) ▪ 올바른 언어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교육, 수업, 학교 자치법정에서 학생들의 잘못된 언어생활 개선 ▪ 학생 스스로가 경험한다면 깨닫게 되어 많은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학생이나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다.(4) ▪ 다양성을 존중한다.(2)
처벌,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로만 하지 말고 강하게 처벌한다.(41), 전학, 퇴학 등 ▪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반성하게 한다.(5) ▪ 혐오표현 신고함이나 사이트를 만든다.(2) ▪ 혐오표현을 들으면 112에 신고한다.(3) ▪ 벌점을 준다.(18) / 규칙 만들어 적용한다.(18) ▪ 교내봉사활동 등 혐오표현을 사용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4) ▪ 혐오표현을 쓴 학생에게 사과를 하게하고 한 번 더 할 때 벌을 준다.(2) ▪ 학교에서 혐오표현을 하지 않은 학생을 투표하여 그 뽑힌 사람에게 상을 준다.(2) ▪ 상담한다.(4)

범주	응답 내용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존칭어 쓰도록 한다.(3) ▪ 장난이라도 서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한다.(4) ▪ 개개인 조심하도록 노력한다. / 바른말 고운 말 쓰기 운동을 한다.(18) ▪ 친구들과 싸우지 않게 노력한다. /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한다.(10) ▪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린다. / 서로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어떤 생각이든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 혐오표현이 용납 불가한 분위기를 만든다. ▪ 캠페인을 계속해서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18) ▪ 우리말 사용하기 프로젝트 수업을 해본다. ▪ 홍보포스터 제작 / 혐오표현 근절 홍보 ▪ 예방교육을 하거나 벽보를 붙여놓는다. ▪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한 행사들을 시행한다.(3) ▪ 선생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모범 보이기 ▪ 학급회의를 통해 혐오표현을 쓰지 말자라는 주제로 토론하기 ▪ 전교생 회의하기

제3장 조사결과와 제언

제1절 조사결과 요약

2020 방문 조사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5조 제1항 3호 내지 4호 등에 따라 학교 내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범위는 2019년 학교 내 학교폭력 사안 중 혐오표현 관련 현황, 관련 상담 현황, 학교 구성원 교육 현황, 학교생활규정에 혐오관련 조항 유무, 혐오표현 예방 노력, 학생의 혐오표현 실태 등이다. 조사 대상은 도내 중학교 중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40개교를 선정하였으며, 학교마다 10명씩 총 400명의 학생에게 설문 조사를 하였다.

먼저,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40개 학교 중 90%에 해당하는 36개 학교의 생활규정에 혐오표현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구성원에게 혐오표현 관련 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조사 대상 학교 중 82.5%인 33개교로, 33개교 중 13개교(32.5%)가 전라북도교육청이 제공한 자료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다. 학교 관리자와 담당 교사 면담 결과, 전라북도교육청이 제공하는 혐오표현 관련 자료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교육에 활용한 자료는 대부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급한 자료로 조사되었다.

셋째,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중 혐오표현 관련 사안 현황과 혐오표현 관련 상담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교 폭력 사안 중 혐오표현 관련 사안은 조사대상 학교 9개교에서 17건의 사안이 접수되었으며, 혐오표현 관련 상담 현황은 조사대상 학교 9개교에서 98회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 관련 문제 유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학교의 47.5%인 19개교에서 혐오표현 관련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유형으로 비속어 사용, 성적인 표현, 장애인과 다문화 비하 발언, 부모 관련 페드립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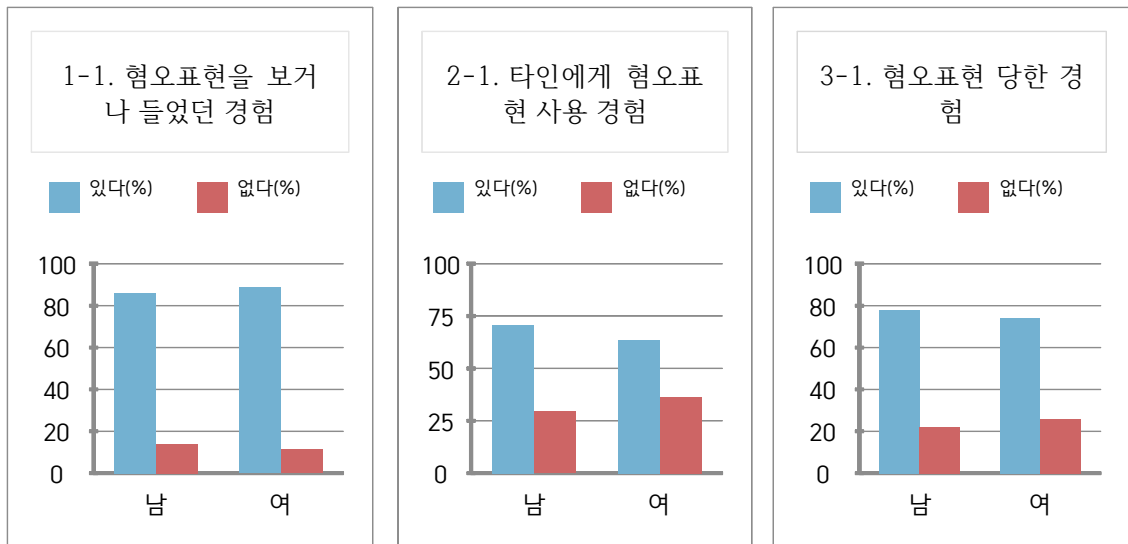
다섯째, 학교는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는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는 혐오표현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내봉사 등을 활용해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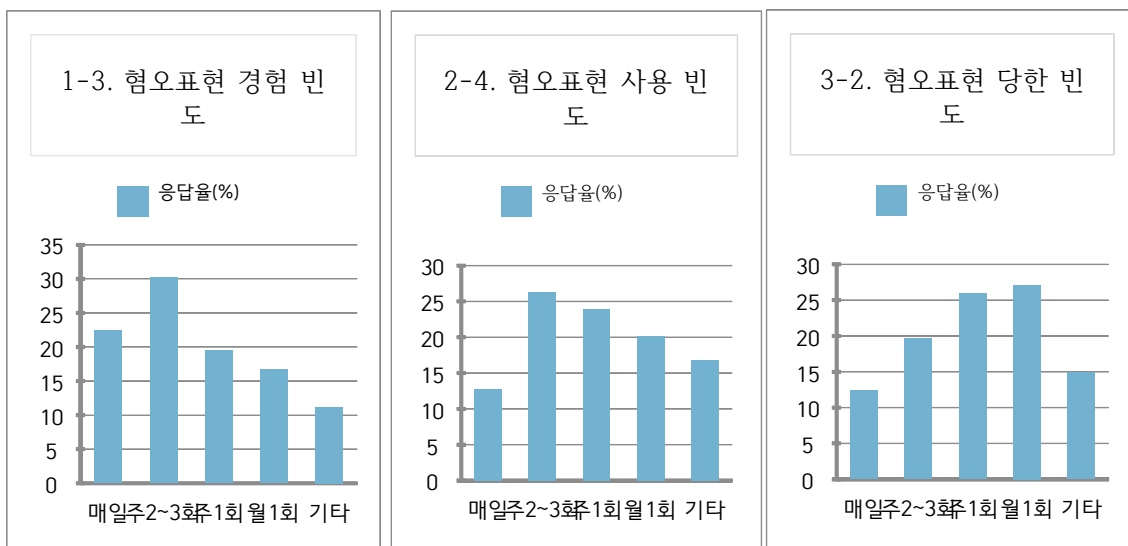
1) 혐오표현 경험

아래 그래프와 같이 학생의 87.5%가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하였고, 66.8%의 학생이 혐오표현을 타인에게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75.8%의 학생이 혐오표현을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혐오표현을 타인에게 하였거나 직접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간접경험에 비해 응답율이 낮기는 하나, 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혐오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혐오표현 경험은 간접 경험은 여학생이, 직접 경험은 남학생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55.4%가 혐오표현을 온라인에서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30.3%는 SNS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46.7%의 학생이 혐오표현을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중 사용 빈도에 따라 ‘정규수업-생활지도 중-기숙사-방과후 수업-학원 수업’ 순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은 오프라인 다음으로 35.5%가 온라인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빈도에 따라 ‘게임-단톡방-SNS-유튜브, 온라인수업’ 순으로 나타났다.



2) 혐오표현 경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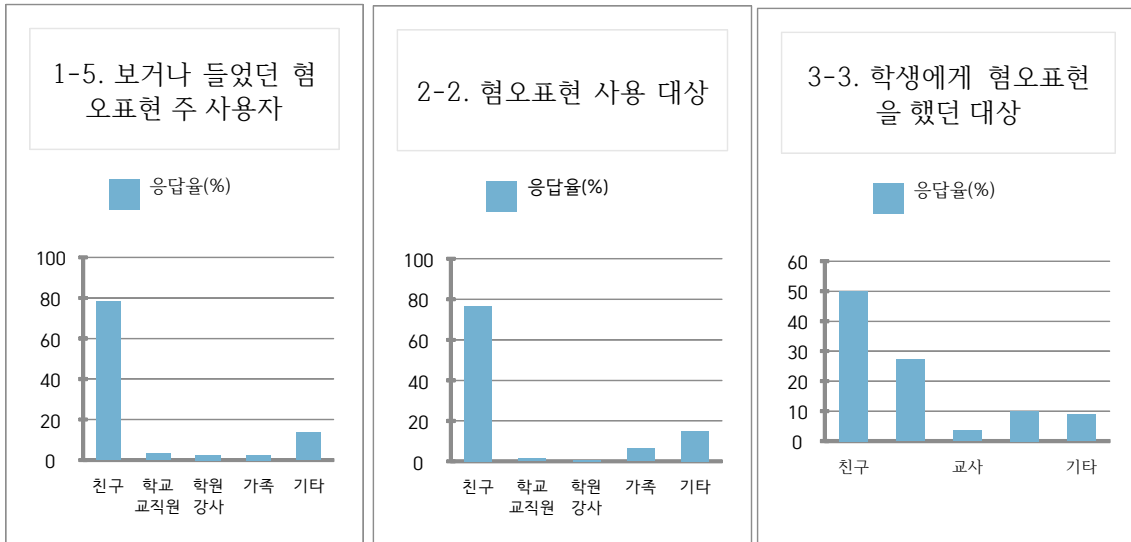


혐오표현 경험 빈도를 비교하면, 일주일에 2~3회 정도 경험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혐오표현을 타인에게 사용한 빈도는 26.3%가 일주일에 2~3회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타인에게 혐오표현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혐오표현 경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1~3회 정도’ 응답 비율이 45.6%로 나타났으며, ‘항상(매일)’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4%로 나타났다. 혐오표현 경험 빈도 비교 그래프로 알 수 있듯이 72.1%가 최소 1주일에 1회 이상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있으며, 63.0%가 최소 1주일에 1회 이상 타인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하며, 58.0%가 최소 1주일에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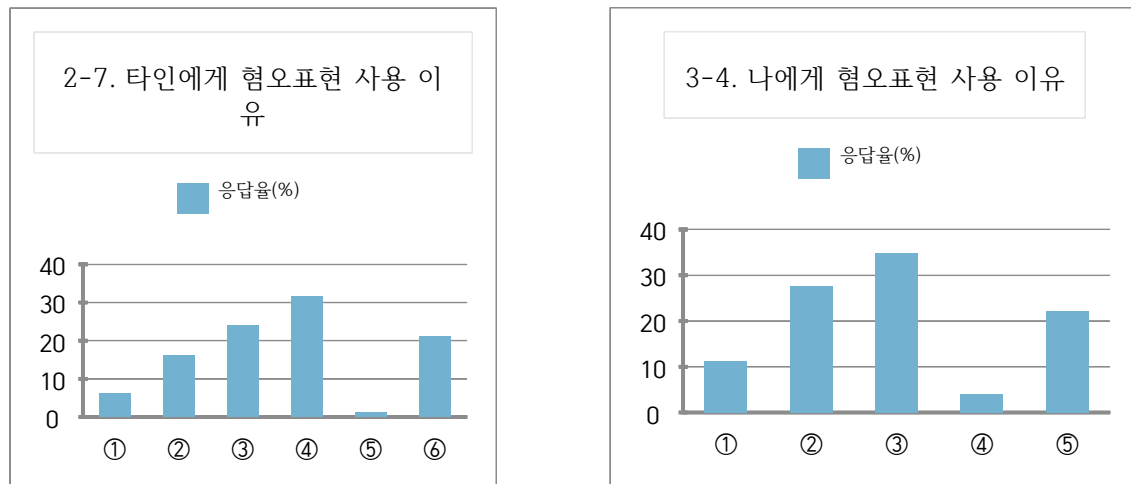
이상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혐오표현 주 사용자

혐오표현을 누구에게 들었고, 누구에게 사용하였는지 조사한 결과는, 78.1%가 친구에게 경험했고, 친구에게 직접 사용했으며(76.5%), 친구에게 직접 들었다고(77.0%) 응답하였다.



4)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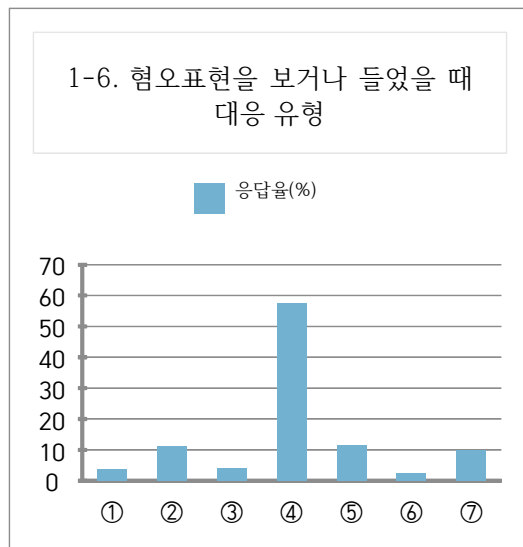


- ① 재미있어 보여서
- ② 다들 그렇게 하니까
- ③ 혐오표현인지 모르고 장난으로
- ④ 상대방이 먼저 혐오표현을 사용해서
- ⑤ 내가 좋아하거나 믿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 ⑥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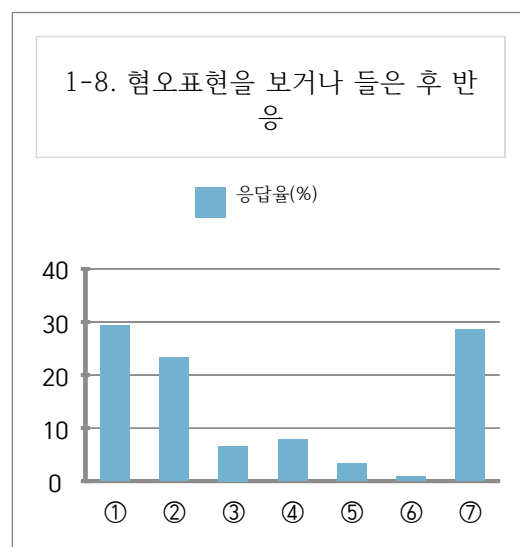
- ① 재미있어 보여서
- ② 다들 그렇게 하니까
- ③ 혐오표현인지 모르고 장난으로
- ④ 내가 먼저 혐오표현을 사용해서
- ⑤ 기타

혐오표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31.5%의 학생은 ‘상대방이 먼저 혐오표현을 사용해서’ 라고 하였고, 23.9% 학생은 ‘혐오표현인지 모르고 장난으로’, 16.1%는 ‘다들 그렇게 하니까’, 6.2% 학생은 ‘재미있어 보여서’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혐오표현인지 모르고 장난으로 (34.9%)’, ‘다들 그렇게 하니까(27.7%)’ 와, ‘재미있어 보여서(11.2%)’ 라고 응답하였다. 즉, 47.5%가 재미있어 보여서 또는 장난 등으로 혐오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73.8%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혐오표현을 하는 이유도 재미있어보여서, 장난으로 등 같은 이유로 혐오표현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5) 혐오표현에 대한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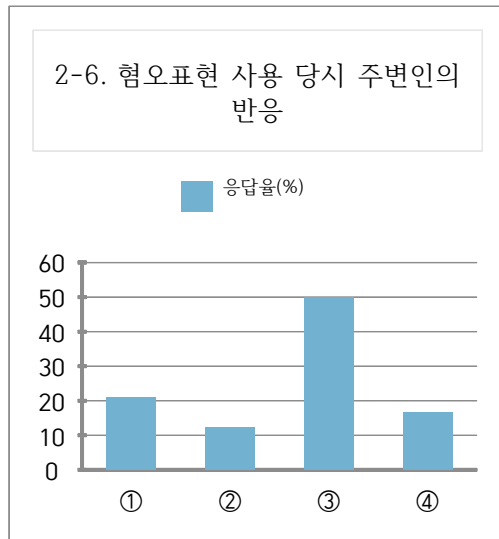


- ① 재미있어서 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 ②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 ③ 동의한다는 표현을 하였다
- ④ 무시했다.
- ⑤ 반대하는 표현을 알렸다.
- ⑥ 학교, 보호자, 사이트 관리자(온라인의 경우), 경찰 등에 알렸다.
- ⑦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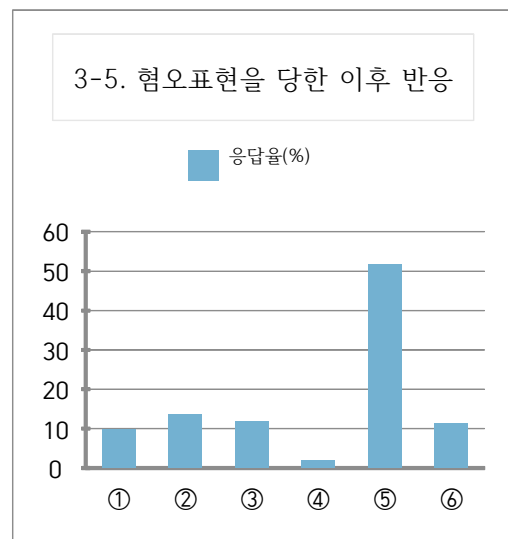


- ①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을 피하려고 했다.
- ② 그런 표현을 한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했다.
- ③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는 게 어려워졌다.
- ④ 자존감이 떨어졌다.
- ⑤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다.
- ⑥ 일상생활에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 ⑦ 기타

혐오표현을 경험할 당시 57.4%가 무시했다고 응답하였으나, 응답 학생 대부분이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을 피하게 된다(29.3%)’ 를 포함하여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어려워지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1-7 응답 결과는 혐오표현을 경험할 당시 57.1%가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응답하였다.



- ①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다.
- ②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 ③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 ④ 기타 (갈등 발생, 같이 웃고 넘어갔다 등)



- ① 우울했다.
- ② 혐오표현을 한 사람과 싸웠다.
- ③ 혐오표현을 했던 사람을 피했다.
- ④ 무서웠다.
- 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 ⑥ 기타(생각하면 짜증남, 기분이 나빠지만 그냥 넘어감, 나도 똑같이 표현함, 그런 말을 또 들을까봐 걱정됨 등)

혐오표현을 사용할 당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질한 결과 50.1%의 학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고 하였고, 21.0%는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다’ 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혐오표현을 당한 이후 상당수의 학생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51.7%)’ 라고 응답하였고, ‘혐오표현을 한 사람과 싸웠다.’ 라는 응답이 13.6%로 나타났다.

혐오표현을 사용할 당시나, 혐오표현을 당한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는 응답이 50%를 차지하나, 학교에서 혐오표현이 계속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38.0%), 갈등이 심해질 것(24.4%)이며,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17.5%) 차별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을 것(12.9%)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생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혐오표현 중 어느 경우가 더 심각한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3%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나 비슷하다.’ 고 응답하였다.

6) 혐오표현의 내용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던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혐오표현의 내용을 질문한 결과는 문항 1-2의 결과 같다. 유형에 따라 분류한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혐오표현의 유형 중 모욕·비하·멸시·위협하는 표현이 차별·폭력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표현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모욕·

비하·멸시·위협하는 표현을 7개의 범주로 분류한 결과, 부모에 대한 패드립과 장애인과 여성, 성소수자와 다문화에 대한 비하·멸시 표현 등이 다수 나타났다.

혐오표현을 사용한 학생에게 사용한 혐오표현의 내용을 질문한 결과는 문항 2-3의 결과와 같다. 유형에 따라 분류한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혐오표현의 유형 중 모욕·비하·멸시·위협하는 표현이 차별·폭력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표현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모욕·비하·멸시·위협하는 표현을 7개의 범주로 분류한 결과 여성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59.4%의 학생이 장애인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 사용자들 중 성소수자와 관련한 혐오표현은 여성(28.6%) 보다 남성(71.4%)이 높게 나타났고, 동물이나 벌레 등에 비유한 혐오표현은 남성(33.3%) 보다 여성(66.7%)이 높게 나타났다.

혐오표현을 당한 학생에게 혐오표현의 주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모욕·비하·멸시·위협하는 표현이 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과 패드립(부모 관련)과 동물이나 벌레 등에 비유한 표현이 주요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여성 응답자의 상당수가 여성에 대한 차별·폭력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혐오표현 관련 교육과 해결방안

학생에게 혐오표현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52%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혐오표현에 대한 교육,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개선, 처벌이나 보상, 캠페인 등으로 조사되었다.

제2절 제언

2020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안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 대상 학교의 90%가 학교 생활규정에 혐오표현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생활규정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매년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개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노력의 성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은 매년 실시하는 학교생활규정 컨설팅을 통해, 혐오표현 금지 조항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함께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또는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조항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장, 교직원,

학생이 하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의 괴롭힘 금지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혐오표현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은 주로 친구에게 듣고 친구에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 혐오표현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사용하는 혐오표현은 장난스럽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표현(학생 설문 문항 3-4. 결과 참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사 내용 중 정규수업에 혐오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학생들의 응답 내용(학생 설문 문항 2-5. 결과 참조)을 고려할 때 교사가 학생들이 사용하는 혐오표현의 실태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 안 혐오 현상이 학생들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모두의 책임성을 확보한 가운데 혐오 현상이 계속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학생 설문 문항 5. 결과 참조)는 인식을 강화시켜 구성원 스스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학교 안 혐오 현상의 대응이나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사이다. 교사가 혐오표현과 차별적 언행,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부적절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이 학교 안 혐오 현상이 일어나거나 차별 등의 인권 침해를 경험했을 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교 안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둔감하다면, 관련 사안이 학교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적절하게 해결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교사 스스로가 차별에 민감하고 혐오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무의식중에 차별적 언행을 했다면 곧바로 정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학생이 교실을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느끼고 교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며, 교사 스스로가 학생 인권 옹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혐오 현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학생들 사이에서 비속어와 욕설이 일상적인 언어습관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혐오표현과 혐오 상황 또한 매우 일상적이다. 심지어 혐오가 학생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또래문화이자 놀이문화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혐오표현을 사용하면서 혐오표현을 일종의 유행어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유로 친구들 사이에서 혐오표현을 거부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일종의 튀는 행위로 친구관계에서 배제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도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누구나 언제든지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혐오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학생이 즉시 사건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권 담당 교사와 인권 구제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혐오와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현상이 벌어졌을 때, 학생이 학교의 인권 구제를 위한 시스템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학교에서 일어나는 혐오현상이 구체적인 사안, 학교폭력으로 번지기 이전에 학생들 스스로가 혐오 현상을 진단하고 공론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혐오 현상에 대한 예방, 대처, 대안적 문화 형성의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학교 안 혐오와 차별 현상을 논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 전반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문화, 학생 자치에 대한 지지와 지원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에서 일어나는 혐오 현상은 사회 전반의 차별적인 체제와 문화, 미디어 등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다. 학생에 의한 혐오와 차별 표현은 기성세대와 학교가 만들어 놓은 차별과 위계, 혐오 문화가 반영된 결과임에도 ‘요즘 학생’이 문제적인 집단으로 언론의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학교 체제와 제도가 민주적이고 인권우호적이라면, 학교 안 혐오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학교 체제와 제도가 위계적, 권위적 구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교 구조와 질서 자체가 일부 구성원을 차별하고 소외·배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찰과 학교 문화를 인권우호적인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혐오 현상이 왜 심각한지, 혐오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성원들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방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듯이 엄마 비하 패드립, 엄마 비하 욕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욕과 멸시의 대상이 엄마라는 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혐오현상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엄마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또한, 여학생(66.7)이 남학생(33.3)보다 외모를 동물이나 벌레에 비유하는 내용을 두 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차별과 폭력을 선전, 선동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남학생(71.4)이 여학생(28.6)보다 성소수자 비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에서 일어나는 혐오 표현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교육을 계획, 실행할 때 교육 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조사 대상 학교의 82.5%는 학생 대상 혐오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하였으나, 학생들의 52%는 교육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이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에게는 실효성이 낮은 형태의 교육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입시 중심의 교육을 최상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학교 안 혐오 현상을 해결하고, 특히 소수자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혐오 현상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의 혐오에 대한 교육 방법 점검 등 교육적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19) 혐오표현 Hate Speech 리포트.

박용숙(2018)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법학논집>(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38(2), 27-64.

이수광(2018) 학교 안 혐오 현상과 교육의 과제. (재)경기도교육연구원.

[부록]

설 문 지

No. ☐ -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매년 학교 내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조사 주제를 선정하고 방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방문 조사 주제는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입니다. 학교 내 혐오표현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해주시면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이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되어 사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행복하길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근거 및 관련】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및 「시행규칙」

2020년 10월

A. 일반적 사항

1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2	학 년	<input type="checkbox"/> 1학년 <input type="checkbox"/> 2학년 <input type="checkbox"/> 3학년

B. 다음은 학생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서 경험하는 혐오표현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기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에서 「혐오표현」의 개념은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해당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이 필요하다고 부추기는 말과 행동”으로 규정하고 설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1. 학생은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2. 보거나 들었던 혐오표현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3. 보거나 들었던 혐오표현 경험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 ① 항상(매일)
 ② 자주(일주일에 2~3회 정도)
 ③ 가끔(일주일에 1회 정도)
 ④ 드물게(월 1회 정도)
 ⑤ 기타

1-4. 혐오표현은 주로 어디에서 보거나 들었습니까?(해당하는 곳에 O표)

- ① 온라인(SNS,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단톡방, 온라인 수업)
 ② 오프라인(정규수업, 방과후 수업, 생활지도 중, 학원수업, 기숙사)
 ③ 기타

1-5. 보거나 들었던 혐오표현은 주로 누가 사용하였습니까?

- ① 친구(학교, 학원, 동네 등의 이성 또는 동성 친구)
 ② 학교 교직원 ③ 학원 강사 ④ 가족 ⑤ 기 타

1-6.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 ① 재미있어서 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②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③ 동의한다는 표현을 하였다.

- ④ 무시했다.
- ⑤ 반대하는 표현을 올렸다.
- ⑥ 학교, 보호자, 사이트 관리자(온라인의 경우), 경찰 등에 알렸다.
- ⑦ 기타

1-7.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① 별 생각이 없었다.
- ② 재미있었다.
- ③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 ④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 ⑤ 기타

1-8.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 ①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을 피하려고 했다.
- ② 그런 표현을 한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했다.
- ③ 자유롭게 의사표현 하는 게 어려워졌다.
- ④ 자존감이 떨어졌다.
- ⑤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다.
- ⑥ 일상생활에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 ⑦ 기타

2-1. 학생은 타인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2. 혐오표현을 누구에게 사용했습니까?

- ① 친구(학교, 학원, 동네 등의 이성 또는 동성 친구)
- ② 학교 교직원 ③ 학원 강사 ④ 가족 ⑤ 기 타

2-3. 학생이 사용한 혐오표현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4. 혐오표현은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습니까?

- ① 항상(매일) ② 자주(일주일에 2~3회 정도)
- ③ 가끔(일주일에 1회 정도) ④ 드물게(월 1회 정도) ⑤ 기타

2-5. 혐오표현은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였습니까?

- ① 온라인(SNS,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단톡방, 온라인 수업)
- ② 오프라인(정규수업, 방과후 수업, 생활지도 중, 학원수업, 기숙사)
- ③ 기타

2-6. 혐오표현을 사용하였을 때 주변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 ①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다. ②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 ③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④ 기타

2-7. 혐오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재미있어 보여서
- ② 다들 그렇게 하니까
- ③ 내가 좋아하거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 ④ 상대방이 먼저 혐오표현을 사용해서
- ⑤ 혐오표현인지 모르고 장난으로
- ⑥ 기타

3-1. 학생은 혐오표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2. 혐오표현을 당한 경험은 얼마나 되나요?

- ① 항상(매일) ② 자주(일주일에 2~3회 정도)
- ③ 가끔(일주일에 1회 정도) ④ 드물게(월 1회 정도) ⑤ 기타

3-3. 학생에게 혐오표현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① 같은 학교 학생 ② 친구 ③ 교사 ④ 잘 모르는 사람 ⑤ 기타

3-4. 학생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재미있어 보여서 ② 다들 그렇게 하니까
- ③ 혐오표현인지 모르고 장난으로 ④ 내가 먼저 혐오표현을 사용해서
- ⑤ 기타

3-5. 혐오표현을 당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 ① 우울했다. ② 혐오표현을 한 사람과 싸웠다.
- ③ 혐오표현을 했던 사람을 피했다. ④ 무서웠다.
- 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⑥ 기타

3-6. 혐오표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 학생은 혐오표현이 온라인에서 발생했을 때와 오프라인에서 발생했을 때 어느 경우가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 ① 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이 온라인에서의 표현보다 더 심각하다
- ② 온라인에서의 표현이 오프라인에서의 표현보다 더 심각하다
- ③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비슷하다

5. 학교에서 혐오표현이 계속 될 경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①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
- ② 차별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음
- ③ 갈등이 심해짐
- ④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임
- ⑤ 혐오차별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 될 것임

6. 혐오표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7. 학교에서 혐오표현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사원 면담 목록

1. 방문일시	2020년 월 일 :			
2. 방문학교	학교			
3. 면담 및 설문	면담인원	명	설문인원	명
4. 수령문서				
5. 주요 조사 내용 및 특이 사항 (자유롭게 서술 해 주세요.)				

2020. . .

방문조사단 조사원 (서명 또는 인)

방문조사단 조사원 (서명 또는 인)



조사원 면담지

학 교 명	
방문일시	2020년 월 일 요일 :
면담대상	※ 면담 대상은 관리자(교장 또는 교감), 인성건강부장, 상담교사
면담내용	※ 면담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수령 ①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에 혐오 관련 규정이 포함유무 ②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혐오 관련 교육 경험 ③ 2019년 학교폭력 사안 중 혐오 관련 접수 현황 및 내용 ④ 2019년 혐오 관련 상담 현황 및 관련 내용 ⑤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노력 ⑥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공한 혐오관련 교육 자료 및 홍보자료 활용 유무 및 정도 ⑦ 학교에서 발생한 혐오 관련 문제 유형(실태)
기 타	

2020. . .

방문조사단 조사원

(서명 또는 인)

방문조사단 조사원

(서명 또는 인)

